

# 다저스-샌디에이고, 2024 ML 개막전 한국서 열린다

3월 20~21일 '서울 시리즈' 확정  
추운 날씨 고려 고척스카이돔 선택  
MLB, 9번째 개막전 '월드 투어'

내년 서울에서 사상 최초로 미국프로야구 메이저 리그(MLB) 정규리그 공식 경기가 열린다.

MLB 사무국은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2024년 3월 20~21일(이하 한국 시간) 서울에서 정규리그 개막전을 벌인다고 13일 발표했다.

MLB닷컴은 한국에서 열리는 첫 MLB 공식 경기이며 다저스와 파드리스의 2연전이 내년 정규리그 개막전이라고 보도했다.

MLB 사무국은 서울시리즈 개최 장소를 밝히지 않았지만, 3월 하순의 추운 날씨를 고려해 한국 유일의 돐구장인 서울 고척스카이돔을 개최지로 선택

할 것으로 알려졌다.

MLB 사무국은 '야구의 세계화'를 기치로 MLB 선수노조와 합의로 미국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에서 정규리그를 진행하는 월드 투어를 추진해왔다.

MLB 공식 개막전이 미국 밖에서 열리는 건 1999년 멕시코 몬테레이, 2000년·2004년·2008년·2012년·2019년 일본 도쿄, 2001년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산후안, 2014년 호주 시드니에 이어 내년 서울이 9번째다. 아울러 서울은 아시아 대륙에서 도쿄에 이어 두 번째로 MLB 공식 개막전을 개최하는 도시가 된다.

특히 다저스는 시드니에서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정규리그 개막전을 치른 2014년 이래 두 번째이자 10년 만에 미국 국경 밖에서 시즌을 출발한다.

스탠 캐스틴 다저스 사장은 "박찬호(은퇴), 최희섭(현 KIA 타이거즈 코치), 류현진(현 토론토 블루제이스) 등 다저스에서 뛰던 선수들을 포함해 풍부

| 연도   | 개최지        | 대항팀                    |
|------|------------|------------------------|
| 1999 | 멕시코 몬테레이   | 콜로라도 로키스 vs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
| 2000 | 일본 도쿄      | 뉴욕 메츠 vs 시카고 컵스        |
| 2001 | 푸에르토리코 산후안 | 텍사스 레인저스 vs 토론토 블루제이스  |
| 2004 | 일본 도쿄      | 탬파베이 레이스 vs 뉴욕 양키즈     |
| 2008 | 일본 도쿄      | 보스턴 레드삭스 vs 오클랜드 애슬레틱스 |
| 2012 | 일본 도쿄      | 오클랜드 애슬레틱스 vs 시애틀 매리너스 |
| 2014 | 호주 시드니     | LA다저스 vs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
| 2019 | 일본 도쿄      | 오클랜드 애슬레틱스 vs 시애틀 매리너스 |
| 2024 | 한국 서울      | LA다저스 vs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

자료: MLB.com (3월 20~21일) 연합뉴스

한 야구 전통과 재능을 지닌 한국에서 우리 선수들이 기량을 뽐낼 생각에 설레다는 걸 알고 있다"고 의미를 뒀다.

1999년 콜로라도 로키스와 몬테레이에서 MLB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바깥에서 정규리그 개막전을 치른 샌디에이고는 올해 멕시코 시리즈에 이어 2년 연속 월드 투어에 참여한다.

MLB 구단의 발표 후 다저스 구단은 보도자료를 따로 내고 서울시리즈의 의미를 강조했다.

다저스 구단은 역대로 4명의 한국 출신 선수가 다저 블루 유니폼을 입었다며 박찬호(1994~2001년, 2008년), 최희섭(2004~2005년), 서재응(현 KIA 타이거즈 코치·2006년), 류현진(2013~2019년)과의 인연을 소개했다.

이어 박찬호(2001년)와 류현진(2019년)은 다저스 소속으로 MLB 올스타전에 출전했으며 김병현(2002년·당시 애리조나), 추신수(2018년·당시 텍사스 레인저스)를 합쳐 올스타전에 나간 코리안 바리거는 4명이라고 덧붙였다.

샌디에이고 구단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태극기를 두른 김하성의 인터뷰 영상을 올렸다.

김하성은 "제가 입단했을 때 조국에서 샌디에이고와 메이저리그를 대표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샌디에이고 유니폼을 입고 한국에서 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기뻐했다.

이어 "팀 동료와 스태프, 코치진을 우리나라에 초대해 제게는 정말 특별하고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다. 한국에서 샌디에이고 팬들이 많이 찾아와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MLB 사무국은 2024년 서울시리즈를 시작으로 4월 28~29일 멕시코시리즈(휴스턴 애스트로스-콜로라도), 6월 9~10일 런던시리즈(뉴욕 메츠-필라델피아 필리스)에 시범경기 기간인 3월 10~11일 도미니카공화국 시리즈(보스턴 레드삭스-탬파베이 레이스)까지 4차례 월드 투어를 벌인다.

/연합뉴스

## KIA, 기분 좋은 '올스타 브레이크' 전반기 투·타 MVP 임기영·최형우



임기영



최형우



타닝포인트를 찍은 '호랑이 군단'이 기분 좋게 올스타브레이크를 맞는다.

KBO 2023시즌이 13일 일정을 끝으로 잠시 멈춘다. 14·15일 사직야구장에서 올스타전이 열리고 이후 21일 리그가 재개될 때까지 그라운드엔 짧은 휴식이 찾아온다

9위까지 추락하면서 위기의 순간을 맞기도 했던 KIA는 전반기 막판 연승 행진을 펼치면서 순위 싸움의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연승기간 황대인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지기는 했지만 손가락 골절 부상을 입었던 김선빈이 가세하면서 야수진은 나성범·김도영이 포진한 완전체를 구성했다.

여기에 삼성과의 트레이드를 통해 포수 김태균을 영입하면서 공수에서 무게감을 더했다. 젊은 투수가 많은 팀에 베테랑 포수의 가세는 확실한 플러스가 됐다.

마운드도 기대했던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외국인 투수를 모두 교체하는 강수를 두면서 변화를 줬고, 초반 부진에서 벗어난 정해영도 위력을 더하면서 기대했던 막강 불펜진이 다시 KIA의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

김중국 감독도 "부상 선수들이 복귀하지 못 할 때 힘들기도 했다. 선수들이 복귀했고, 선수들이 잘해줘서 전반기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막판 6연승 순위싸움 '다크호스' 김중국 "두 선수가 버팀목 역할"

전반기 김중국 감독이 꼽는 투·타의 MVP는 임기영과 최형우다.

김중국 감독은 "형우가 전반기에 중심에서 너무 잘해줬다. 버팀목이 됐다. 투수는 기영이가 MVP다. 이른 타이밍에 나가기도 하고 이닝도 많이 책임지는 등 불펜에서 굵은 일을 많이 했고 잘해줬다"고 두 선수의 이름을 꼽았다.

가장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인 선수로는 이우성과 최지민을 지목했다.

김중국 감독은 "이우성이 나성범 없을 때 한 몫을 해줬다고 생각한다. 최지민은 기대보다 정말 잘해줬다. 필승조, 셋업, 마무리까지 기대보다 훨씬 잘하고 있는 선수"라고 언급했다.

KIA는 후반기에 맞춰 선발로테이션을 조정하고, 훈련을 통해 감 유지에 나선다.

김중국 감독은 "후반기 선발로테이션은 다시 조정할 생각이다. 로테이션 세팅해놓고 훈련 피정하는 것 봐서 조율할 수 있다. 17·18·20일 훈련을 할 생각이다"며 올스타브레이크 일정을 이야기했다.

후반기 KIA의 키워드는 '부상'과 '이닝'이다.

KIA는 전반기 야수진의 부상으로 고전했다. 마운드에서는 선발진의 이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올 시즌 막판까지 치열한 순위 싸움이 예고되는 만큼 김중국 감독은 두 키워드에 집중해 후반

기 순위 싸움에 속도를 내겠다는 각오다. 좋은 분위기에서 휴식에 들어가는 선수들도 아쉬움 보다는 기대감으로 후반기를 보고 있다.

12일 삼성전에서 원태인을 상대로 홈런 포함 3안타 활약을 하면서 승리의 주역이 된 박찬호는 "개인적으로는 1주일 정도만 더 하고 쉬면 좋겠다(웃음). 7월에 좋은데 아쉽기는 하다. 그래도 항상 쉬고 나오면 괜찮았다"며 "잘 준비해서 후반기에 좋은 모습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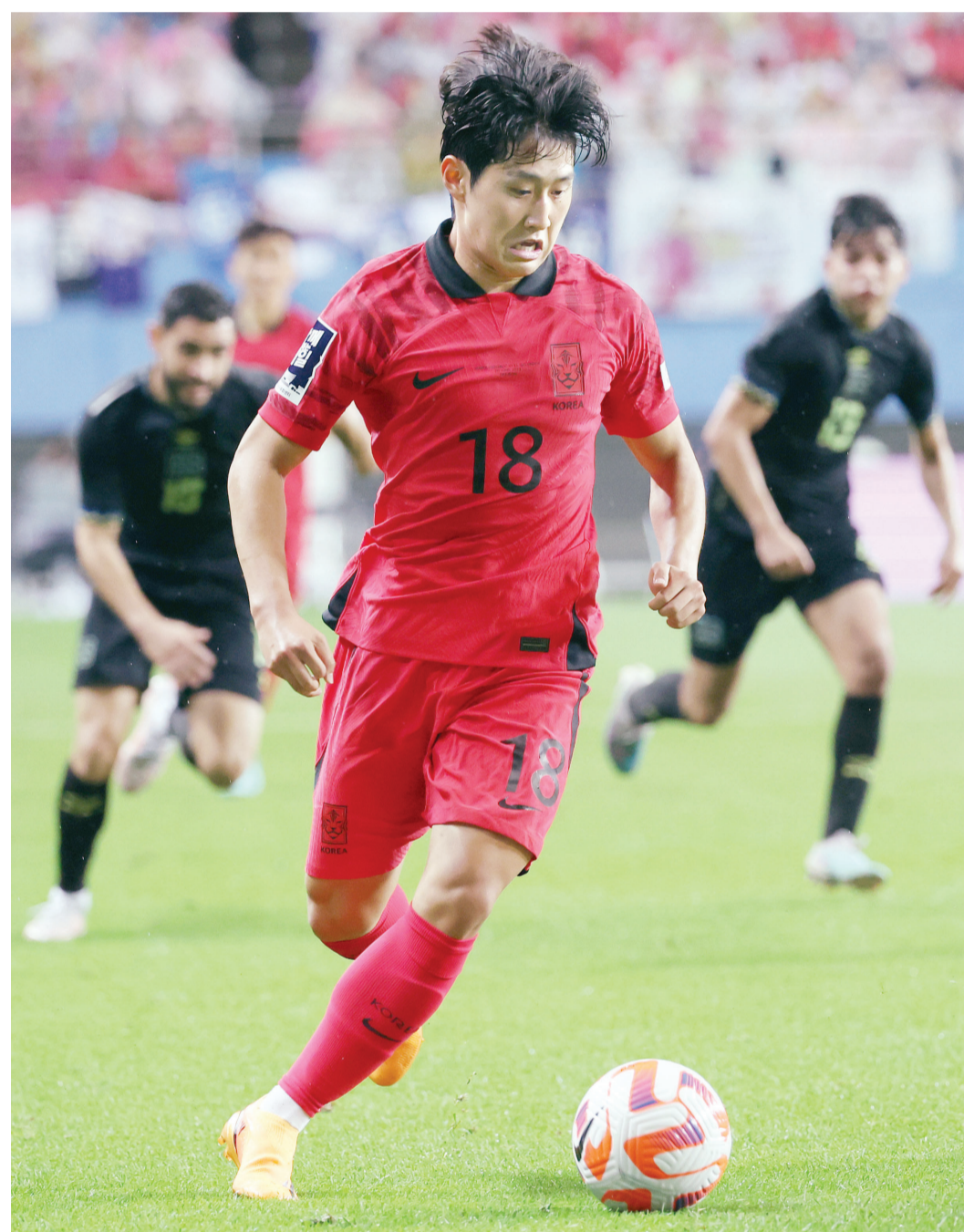
부상으로 뒤늦게 합류한 나성범은 가족과 시간을 보내면서 몸 관리에 신경 쓸 생각이다.

나성범은 "모처럼 올스타전 때 쉰다. 아쉽지만 끝 같은 휴식이다. 가족들과 휴식 기간 내내 함께 한 적이 없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한다"며 "퓨처스 경기 처음 뛸 때는 (부상 부위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없다. 이럴 때 관리를 더 잘해야 한다"고 후반기 건강하게 꾸준한 활약을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복귀 후 13경기에서 2개의 홈런 포함 19개의 안타를 기록하면서 0.339의 타율을 기록한 김도영도 잠시 호흡을 고르면서 후반기 집중을 준비할 생각이다.

김도영은 "한 번 쉬어간다는 생각으로, 이제 떨어질 때 됐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쉬던 후반기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대로 유지하면서 하고 싶다. 지금 분위기가 좋아서 행복하다. 잘 쉬고 후반기에 부상없이 완주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이강인

## AG 최고 스타플레이어는 이강인

'항저우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 최종 명단 오늘 발표

오는 9월 개막하는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나설 남자 축구대표팀 최종 엔트리(22명)가 14일 발표되면서 황선홍 감독의 선택에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13일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 엔트리 발표에 따른 황선홍 감독의 기자회견을 1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4년 인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 이어 3회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황선홍호는 2021년 9월 출범한 이후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2024 파리 올림픽을 목표로 담금질을 이어왔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애초 2022년에서 코로나 19 여파로 1년 연기되는 틈에 출전 선수들의 나이를 제한도 24세 이하(1999년생)로 1살 상향됐다.

이에 따라 황선홍 감독은 선수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게 다행스럽다.

2019년 폴란드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준우승 멤버인 엄원상(울산 현대), 조영욱(김천 상무), 고재현(대구 FC), 최준(부산 아이파크) 등을 비롯해 유럽파 정우영(독일 프라이부르크), 홍현석(벨기에 헨트) 등이 1999년생이다.

실제로 황 감독은 엄원상, 조영욱, 고재현, 정우영, 최준을 비롯해 K리그1 무대에서 활약하는 1999년생 스트라이커 송민규(전북 현대)까지 소

집해 지난날 중국 항저우에서 치른 중국 U-24 대표팀과 친선전을 치르며 경증을 끝냈다.

지난달 중국과 치른 평가전 멤버들이 최종 엔트리에 가장 근접한 '정예 요원'으로 풀이 된다.

항저우 대회를 빛낼 최고 스타플레이어는 단연 '막내형' 이강인(PSG)이다.

이강인은 황선홍호에서 '10번 자리'를 맡을 것으로 점쳐진다. 수비 부담을 줄여주면서 새도 스트라이커나 투톱 스트라이커를 맡아 위험지역에서 뛰어난 볼키퍼 능력으로 득점에 가담하는 역할이 최적이란 분석이다.

최종 명단 확정에서 황 감독이 고심하는 부분은 해외에서 뛰는 선수들의 합류 문제다.

이강인을 비롯해 정우영, 홍현석 등은 군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한 터라 소속팀에서도 아시안 게임 우승에 주어지는 병역 혜택에 관심이 많아 대표팀 차출에 큰 이의가 없는 상태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나설 황선홍호의 '와일드카드(24세 이상)'도 관심거리다. 와일드카드는 22명의 최종 엔트리에 3명까지 쓸 수 있다.

와일드카드의 후보는 K리그에서 맹활약하지만, 아직 병역을 마치지 못한 선수에게 돌아갈 확률이 높다.

1998년생 수비수 설영우(울산), 1997년생 중앙 미드필더 백승호, 1995년생 수비수 박진섭(이상 전북)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 SSG, 방망이로 후배 폭행한 이원준 퇴단

프로야구 SSG 랜더스가 후배를 방망이로 폭행해 물의를 빚은 투수 이원준(25)을 방출했다.

SSG는 13일 "어제(12일) 구단 자체 징계 위원회를 열고, 이원준을 퇴단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단은 이번 사안이 프로야구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며 "구단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인 퇴단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을 보냈다.

SSG 구단은 13일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이

원준에 대한 웨이버 공시도 요청했다.

이번 사건에는 후배들에게 열차려를 가한 '가해자' 2명이 더 있다.

SSG는 "열차려를 지시한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KBO 상벌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며 "조만간 재발 방지 대책 등 후속 조치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